

고품격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ACC 공연 브랜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 슈퍼클래식



2019 『바이올린 부문』 콩쿠르 우승자들의 국내투어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s Concert

#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2019.9.6.(금) 오후 7: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s Concert

## PROGRAM

### Liebrecht Vanbeckevoort

리브레히트 반베케부르트

### R. Schumann / F. Liszt - Widmung Op.25 S.566

로베르트 슈만 / 프란츠 리스트 | '헌정' Op.25 S.566

### F. Liszt - Liebesträume No.3 in A-Flat Major, S.541

프란츠 리스트 | '사랑의 꿈' 녹턴 3번 A플랫장조 S.541

### F Liszt - Tarantella

프란츠 리스트 | 타란텔라

### Stella Chen

스텔라 첸

### J. Brahms - Violin Sonata No. 2 in A major Op. 100

요하네스 브람스 |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 Op.100

I . Allegro amabile

II . Andante tranquillo - Vivace di piu

III. Allegretto grazioso - quasi Andante

### F. Waxman - Carmen Fantasy

프란츠 왁스만 | 카르멘 환상곡

인터미션 Intermission

### Timothy Chooi

티모시 추이

### C. Franck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세자르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I . Allegretto ben moderato

II . Allegro

III. Recitativo-Fantasia: Ben moderato

IV. Allegretto poco mosso

### H. Wieniawski - Scherzo Tarantelle Op.16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 스케르초 타란텔라 Op.16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1위 스틸라 첸

2위 티모시 추이

리브레히트 반베케부르트 (2007년 피아노 부문 우승자)

## QUEEN ELISABETH COMPETITION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기원은 19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명의 인물이 탄생에 관여했다. 첫째는 바이에른의 여공작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로, 나중에 엘리자베스 왕비가 된 사람이다. 그녀는 벨기에의 적통 왕자인 알베르트와 결혼, 브뤼셀로 이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에서 저명한 안과의사로 변신한, 백내장 수술의 선구자였다. 아버지로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은 엘리자베트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다.

두 번째 인물은 외젠느 이자이다. 당시에 자신의 탁월한 커리어에서도 정점에 달하던 그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드뷔시의 현악 4중주, 쇼송의 '시곡' 등을 초연하기도 했다. 이자이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역사적인 4중주단을 만들었다. 라울 푸노와 함께 듀엣으로 리사이틀을 거듭하는 한편 교향악 협회를 조직해 현대음악의 레퍼토리를 탐구하는 일도 계속했다.

이자이는 브뤼셀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전 세계를 돌며 연주 여행을 펼치며 시대를 풍미한 비르투오소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알베르트가 왕위에 오르자 벨기에 국민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왕비에게 축복을 보냈다. 1912년 이자이는 왕립 음악원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관직에 앉은 이자이는 점차 비르투오소로부터 멀어져갔다. 곧이어 터진 전쟁으로 그는 벨기에에서도 멀어진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신시내티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을 수행하던 이자이는 전후 벨기에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후기 낭만주의의 사도로서, 그리고 비르투오소 작곡가로서 이자이는 낡고 오래된 문화적인 변환기에서 프랑스 6인조나 스트라빈스키, 신 빈 악파 등에는 호감을 지니지 못했다. 그는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소나타 등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s Concert

음악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작곡했다. 엘리자베스 왕비를 비롯한 동료들의 따스한 환대 속에서 생활하던 그는 티보, 크라이슬러, 코르토, 카잘스, 시게티와도 교류하며 은퇴한 비르투오소로서 지휘와 작곡을 계속하고 있었다.

1900년대에 이자이는 이미 세계적인 콩쿠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구상했던 선구자였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친구였던 그는 루빈슈타인 콩쿠르처럼 사람의 성을 딴 콩쿠르에 싫증이 난 상태였다. 그의 친구들 및 동료들 중 여러 명이 루빈슈타인 콩쿠르의 수상자였다. 그들 중에는 페루치오 부조니와 에미유 보스케도 있었다. 루빈슈타인 콩쿠르는 5년마다 열렸으며 피아니스트들과 작곡가들이 참여하는 콩쿠르였다. 그러나 이 콩쿠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1927년 바르샤바에서 쇼팽 콩쿠르가 시작되고, 피아노 콩쿠르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레퍼토리가 협소했다. 어디까지나 쇼팽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를 발굴하려는 대회였다. 이자이는 젊은 비르투오소들이 현대음악까지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며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의 숙련도를 서로 견주는 대회를 마음 속에 그렸다. 그리고 콩쿠르의 입상을 그들 젊은 예술가들 경력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이자이는 더 나아가 미발표된 작품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석하도록 하여 궁극의 테스트를 실시하려 했다.

엘리자베스 왕비는 그러한 콩쿠르를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 이자이는 퀸 엘리자베스 음악 재단이 설립되고 난 직후인 1931년 세상을 떠났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사교로 숨진 알베르트 왕에 이어 그의 며느리였던 아스트리드 왕비가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대규모의 예술적 행사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1937년에 와서야 제1회 이자이 콩쿠르가 개최됐다.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던 예술가들은 이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해달라는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연주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참가자들의 신청이 쇄도했다. '이자이'란 이름의 브랜드와 제1차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널리 칭송받던 알베르트 왕과 엘리자베스 왕비가 대표하는 벨기에 궁정의 좋은 이미지가 조합을 이룬 이 콩쿠르는 바이올린계의 엘리트들을 브뤼셀에 불러 모았다. 이들의 연주는 심사위원과 청중 모두에게 풍부한 인상을 남겼다. 자신감에 찬 소비에트 악파는 1등부터 그 아래까지 상을 독차지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논란의 여지없이 1등을 수상했으며 모두는 탄성을 지르며 그의 수상에 만족해야 했다. 자부심의 대상이었던 벨기에 바이올린 악파는 실패했다. 아르투르 그뤼미오와 카를로 반 네스테가 결선에 오르지 못한 사건은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렸다. 젊고 경험이 없었던 이들을 심사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자이 콩쿠르의 성공은 이후의 행사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디오를 통해 중계된 콩쿠르는 청중들을 모을 수 있었고 스포츠 이벤트와 예술적인 행사를 합친 듯한 이 행사는 음악애호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제2회 이자이 콩쿠르는 1938년 열렸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뿐 아니라 피아노도 대상에 넣었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도 이전과 동일했다. 모우라 림파니(당시에는 매리 존스톤으로 알려졌던)는 에밀 길렐스(1위)와 제이콥 플라이어(3위) 사이에서 미끄러졌고 대체로 상이 공정하게 수여되었지만(벨기에인이었던 앙드레 뒤모르티에는 연주를

아주 잘 해서 놀랄 만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였던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바로 다음인 7위에 올랐다) 소비에트 악파는 다시 한 번 두각을 드러냈고 러시아인들은 짐짓 겸손한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선각자들과 너그러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담한 콘셉트로 완성된 음악 학교를 개설했다. 소비에트 악파를 모델로 어린 벨기에 음악도들에게 훈련을 통해 주목할 만한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한 것이다.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샹펠(Queen Elisabeth Music Chapel)이 그것이다. 왕비의 유지는 한 세기가 지나 더욱 빛을 발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국제정세에 따라 계속 중지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문화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매우 활발하기는 했지만 이내 완전히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음악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었던 퀸 엘리자베스 음악재단의 행정수석인 샤를르 후드레는 재정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협회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시절은 하 수상하고 앞날을 점칠 길이 없었다. 전후 벨기에의 왕실은 더욱 그러하였다. 엘리자베스 왕비의 자녀인 레오폴드 3세와 마리 조세(잠시 이탈리아의 왕비였던)는 그들의 왕관을 잃었다. 셋째인 샤를르는 5년동안의 벨기에 섭정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가 예술에 관심이 지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상황에서 국가의 재건보다 예술이 앞설 수는 없었다.

1950년 봄 이자이 콩쿠르는 재출범을 결정했다. 1940년 벨기에 주네스 무지칼레(Belgian Jeunesses Musicale)의 설립자인 마르셀 쿠블리에와 1945년 르네 니콜리는 국제 주네스 무지칼레 연합의 설립자인 르네 니콜리는 왕비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를 만들자고 엘리자베스 왕비를 설득했다. 콩쿠르의 탄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파울 드 로누아는 이 대회 의 위원장이 되었다.

드디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첫 번째 대회가 1951년 봄에 개최되었다. 대회는 이자이 콩쿠르의 규율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이때부터 유명한 뮤직 샹펠의 건물들이 결선 진출자들의 연습 장소로 제공되었다. 이 건물들은 단번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상징이 되었다. 1956년까지 뮤직 샹펠이 지어진 원래의 의도는 그림자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1957년 국제 음악 콩쿠르 협회의 창립 멤버가 되며 창설 이후 가장 영예로운, 그러나 가장 입상하기 힘든 콩쿠르로 알려지게 되었다. 1951년부터 바이올린 부문, 1952년부터 피아노 부문, 1953년부터 작곡 부문, 그리고 1988년부터 성악 부문, 2017년 첼로 부문을 각각 신설, 매년 한 부문, 부문별로는 4년마다 한 차례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룬다. 바이올린 부문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9년의 경연은 1위 미국의 스텔라 첸, 2위 캐나다의 티모시 추이 등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는 상징적인 장소가 세 군데 있다.

첫째는 브뤼셀 왕립 음악원. 1876년 대 홀(Grande Salle)이 설립되었다. 이름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은 장소이지만 어쿠스틱은 어느 큰 홀 못지 않게 좋다. 이탈리아 스타일의 이 콘서트홀은 실내악과 리사이틀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둘째는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샹펠. 기능적이고 우아한 이 건물은 1939년 워털루에 높은 수준의 음악 교습을 위해 지어졌다. 12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일주일동안 머물며 미출판된 협주곡을 연주하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음악과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참가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장소다.

셋째는 브뤼셀의 팔레 데 보자르(Palais Des Beaux-Arts)로 1928년 빅토르 호르타가 건립했다. 성악 부문 결선 진출자들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준결선 무대가 펼쳐지는 2,052석의 대 콘서트홀의 음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결선 연주회는 티켓을 구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을 시청하지만 어쨌든 결선 무대를 직접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곳은 “꼭 존재해야만 할 장소”라며 이구동성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위의 장소들이 아름답고 유서깊게 된 것은 젊은이들의 도전정신, 거기에 배인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위의 승자와 패자, 심사위원과 청중 모두가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얻는 곳. 불현듯 한 명의 청중으로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글 류태형(음악 칼럼니스트)

## 로베르트 슈만 / 프란츠 리스트 편곡 ‘헌정’ Op.25 S.566

R. Schumann / F. Liszt  
Widmung Op.25 S.566

프리드리히 비크 교수의 집에 기거하는 동안 로베르트 슈만은 비크 교수의 딸 클라라와 사랑에 빠졌다. 클라라 비크는 천재 피아니스트였다. 슈만과 클라라의 연애는 솔한 명곡을 낳았다. ‘교향적 연습곡’ ‘환상소곡집’ ‘노벨레테’ ‘사육제’ 등 피아노 명곡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작곡됐다. 비크 교수는 딸의 결혼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슈만과 클라라는 법원에 소원을 내서 끝내 승소, 결혼 허가를 받기에 이른다. 1840년, 슈만은 드디어 클라라와 결혼한다. 뤼케르트, 괴테, 바이런, 번즈, 무어, 모젠 등의 시에 곡을 붙인 26곡의 가곡집 ‘미르테의 꽃(Myrthen)’은 결혼 전날 클라라에게 바친 슈만의 마음이다.

결혼은 슈만에게 작곡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특히 슈만은 일정기간 동안 장르별로 집중력 있게 계획적인 작품을 양산했는데, 클라라의 격려와 많은 관련이 있다. 슈만은 결혼하던 해인 1840년을 ‘노래의 해’라고 불렀다. 이름 그대로 가곡을 많이 작곡한 해라는 뜻이다.

‘미르테의 꽃’ 중 첫곡인 ‘헌정(Widmung)’은 독일 낭만파 시인 뤼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였다. 연인을 사모하는 동경에 찬 정열적인 가사이다. 슈만의 가곡 중에서 독립적으로 노래되는 경우가 많고, 명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했다.

## 프란츠 리스트 ‘사랑의 꿈’ 녹턴 3번 A플랫장조 S.541

F. Liszt  
Liebesträume No.3 in  
A-Flat Major, S.541

1847년 프란츠 리스트는 세 곡의 가곡을 썼다. ‘테너 혹은 소프라노를 위한 3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 곡들은 1곡 ‘고귀한 사랑’, 2곡 ‘가장 행복한 죽음’, 3곡 ‘오 그토록 오래 사랑할 수 있다면’이었다. 1곡과 2곡은 루트비히 울란트의 시에, 3곡은 시인 헤르만 프라일리그라트의 시에 곡을 붙였다. 3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한/ 오, 사랑하라, 사랑할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시간이 오리라, 시간이 오리라/그대가 무덤 옆에서 슬퍼할 시간이 찾아오리라’

리스트는 3개의 가곡을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해 ‘3개의 녹턴’이란 제목을 붙였다. 1번과 2번도 쇼팽의 녹턴에 비견할 만큼 수려한 멜로디를 자랑하지만 그중 3번은 리스트의 가장 아름다운 소품으로 꼽을 만하다. 원곡인 성악곡은 세 곡 모두가 소프라나나 테너 가수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율이 지극히 서정적이고 아름답다. 피아노로 재현되면서 리스트의 피아니즘이 원곡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에 빛을 더한다. 첫 머리에 등장하는 감미로운 선율이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곡 전체를 지배한다. 이 멜로디는 계속해서 변주되다가 곡 중간에 절정에 이른다.

## 프란츠 리스트 타란텔라

F. Liszt  
Tarantella

리스트의 성격소품 중 하나인 ‘타란텔라’는 남부 이탈리아를 기원으로하는 춤곡이다. 남쪽의 춤답게 빠르고, 경쾌하고, 때로는 격렬함을 느끼게 하는 악상을 가지고 있다.

‘타란텔라’라는 제목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여러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남부 이탈리아 풀리아(Puglia) 지방의 춤에 ‘타란텔라’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 외에도 때로는 격렬한 양상을 보이는 타란텔라는 그 풀리아 지방에 세력을 펴고 로마 제국에 금지된 지하 종교 의식에 사용된 열정의 댄스라는 설이 있고, 이 지역의 특징적인 독거미에 물렸을 때 경련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춤추는 모습이 유래라는 얘기도 있다. 혹은 이와 반대로 독거미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열하게 추는 춤이 타란텔라의 발상이란 주장도 있다. 실로 다양한 이야기로 수놓아진 춤곡이다. 사실, 풀리아 지방의 격렬하고 명량한 노래와 춤에 같은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전해지는 커플 댄스 등이 융합하여 ‘남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타란텔라’라는 곡의 형식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타란텔라는 수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을 매료시켰다. 로시니, 멘델스존, 쇼팽, 생상스, 차이콥스키,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등 작곡가들이 타란텔라를 작곡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의 마술사, 초절 기교를 자랑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프란츠 리스트의 ‘타란텔라’는 특히 유명하며 자주 연주된다.

헝가리 출신이지만 여행을 많이 하고 프랑스와 독일에 거주한 리스트는 이탈리아에 연고가 깊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결혼 문제로 고민해 바티칸에 탄원을 하거나 출가하거나 한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 리스트는 괴테처럼 이탈리아에 매료됐다. 클래식 음악의 발상지이며 차곡차곡 쌓여있는 고대부터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런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순례의 해’는 총 3권으로 이뤄져있다. 23개의 개별곡과 2권에 추가된 3곡으로 구성돼 있다. 작품 전체를 완성시키는 데 40년이 걸린 대작이다.

시리즈에서 3권에 해당하는 ‘순례의 해 제2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는 ‘곤돌라’, ‘칸초네’, ‘타란텔라’로 이뤄졌다. 마지막 제3곡이 ‘타란텔라’다. 리스트가 ‘순례의 해’ 시리즈를 마무리할 만한 화려한 곡을 만들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의 치열한 무곡 형식 ‘타란텔라’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지막 ‘타란텔라’는 오늘날에는 잊힌 작곡가인 귀욤 루이 고트라우(Guillaume Louis Gottrau, 1797~1847)의 주제를 사용했다. 화려한 효과와 경쾌한 리듬이 인상적이다.

처음부터 격렬한 연타와 함께 섬뜩한 춤이 시작되는 이 곡은 중간 부에서 나폴리 곤돌라 뱃사공의 뱃노래를 연상시키는 칸초네풍 선율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리스트의 초절 기교를 최대한 살린 격렬한 댄스가 절정을 맞이한다. 독거미와 관련 있는 타란텔라의 의미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리스트의 이 작품은 낭만주의 피아노 작품의 백미 중 하나다. ‘순례의 해’ 전곡뿐만 아니라 이 곡만 단독으로 연주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음악 속에서 아른대는 독거미의 이미지가 비르투오시티로 변해 청중들을 즐겁게 한다.

## 요하네스 브람스

###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 Op.100

## J. Brahms

### Violin Sonata No. 2 in A major Op. 100

브람스는 모두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썼다. 1번 G장조는 ‘비의 노래’라 불린다. 3악장 첫머리의 선율이 가곡 ‘비의 노래’와 악상이 같기 때문이다. 2번 A장조 소나타는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노래의 선율에 가까운 곡이다. 가곡 선율을 이용했고 부드럽고 다정한 정조다. 이에 비해 3번 D단조 소나타는 내성적이고 심각하게 다가온다.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의 밝고 서정적인 선율 뒤에는 브람스 특유의 적적함이 숨어있다. 친숙하기 쉽지만 열정적이면서 가냘프고 슬픈 곡임을 알 수 있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아름다운 뵘러 호반의 시원한 피르차흐에서 썼다. 남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소나타 2번도 웅대한 풍경으로 둘러싸인 스위스의 툰(Thun) 호수 근처의 시원한 툰 마을에서 썼다.

브람스는 1886년부터 3년간 매년 여름을 스위스의 툰에서 지냈다. 툰에 머문 첫 여름에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그들과 어울리며 브람스는 밝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또 독일 리트의 뛰어난 콘트라alto 가수인 헤르미네 슈피스(Hermine Spies 1857~1893)와 24년의 나이차에도 연애에 가까운 교제를 했다. 1886년 브람스의 작품들은 이러한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1886년 브람스의 작품인 첼로 소나타 2번,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모두 맑고 느긋하다. 특히 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바로 전에 만든 첼로 소나타보다도 빛나며 명랑하다. A장조라는 조성과 바이올린의 높고 밝은 음, 그리고 선율적인 특징이 곡의 여유로운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1886년 5월 브람스는 툰으로 가서 가을까지 머물렀다. 이 해 8월 두세 곡의 가곡 외에 그로트의 시에 의한 합창곡 ‘가을에’와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 C단조의 3중주곡,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가 완성됐다.

이 곡의 개인적인 초연은 툰 가까이 베른에 있던 문필가인 비트만의 살롱에서 이루어졌다. 피아노는 작곡자 자신이 담당했지만, 바이올린은 누가 연주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물론 그것은 비트만 집에 친하게 드나들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공개 초연은 1886년 12월 2일 친구인 헬메스베르거(Joseph Hellmesberger, 1828~1893)와 브람스가 했다. 악보는 초연 이듬해(1887년)에 짐코크사에서 출판되었다.

#### 1악장 | 알레그로 아마빌레 (Allegro amabile)

1악장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다가오지만 가끔씩 격정이 고개를 내민다. 이를 대위법적인 전개가 뒷받침한다. 밝고 따스함이 있는 제1주제로 시작한다.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의 ‘찬양가’와 비슷한 동기를 가졌다. 이것은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거기에 가끔 바이올린이 반향처럼 가해진다. 이 주제가 완전히 끝나면, 암시하는 듯한 바이올린에 이어 피아노가 느긋하게 반음계적으로 상승하며 경과부가 시작된다. 바이올린은 피아노의 대위 선율을 동반하여 제1주제를 연주하기 시작하지만, 곧 그것을 반음 올려 다시 한 번 반복한다. 이후 갑자기 이들 악기는 명쾌하고 리드미컬한 악구를 연주한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온화한 감정이 깨지지만, 곧 또 고요해지고, 바이올린은 기세 좋게 상행한 후에 점점 약해져 간다. 그리고 E#, F#을 거쳐 G#, A음으로 올라가지만, 마지막에 다시 반음 높음 A#음에서 바이올린은 쉰다. 그리고 곡은 잠시 중단된다. 뭔가 기대되는 듯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시 이번에는 피아노가 E장조의 서정적이며 안정된 제2주제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바이올린이 가끔 우아한 음형으로 이 위에 얹힌다. 이번에는 피아노만이 리드미컬한 악구를 연주한다. 이것이 끝나면, 바이올린이 주체로 되어, 제2주제를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포르테로 되면 이들 악기는 대위법으로 서로 대립하여 재미있게 진행하고, 점점 약해져 피아노에 이르며, 피아노만의 E장조의 반중지, 이어서 1마디의 기대에 찬 전후지로 제시부는 끝나고 반복되지 않는다.

발전부는 온화하게 바이올린의 제1주제로 시작된다. 사라지듯이 약하게 피아니시모로 되면, 이번에는 피아노가 충실한 음으로 같은 주제를 처리한다. D단조에서 애수가 감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버리듯이 갑자기 피아노는 힘찬 베이스로 제1주제 서두의 ‘찬양가’의 동기를 연주한다. 이렇게 해서 브람스 특유의 두툼한 대위법적 전개가 펼쳐진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대칭형을 취하면서 전회 모방이 되기도 한다. 이 두툼한 대위법이 끝나면, 리듬이 확실한 기세 좋은 부분이 된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선율은 새로운 것 같이 들리지만, 역시 실은 제시부의 재료에 의거하고 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하는 입체적인 대위법적 효과는 듣는 사람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발전부의 클라이맥스와 동시에 이 악장의 긴장의 정점이다. 마침내 이 긴장을 푸는 것처럼 피아노는 디미누엔도하여, 점점 하강해 간다. 하강이 끝나는 지점에서 피아노의 1마디의 휴지, 바이올린의 기분 좋은 8도의 더블스톱에 이어서 다시 기묘한 대위법이 시작된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같이 격렬한 힘도 없으면 흥분도 느껴지지 않는다. 담담하고 평온하게 모든 것이 흘러 지나간다. 그리고 피아노의 반주에 실려 바이올린이 C#음을 4번 반복하여 연주하면, C#장조에서 A장조로 전조하고 느낌이 변하며 재현부가 시작된다.

재현부는 일반적인 틀대로 기초의 온화한 제1주제로 시작된다. 경과부의 다음의 제2주제도 규칙대로 A장조로 나온다. 코다는 꿈꾸듯이 서정적인 것으로, 조용하고 기쁨이 넘친다.

#### 2악장 | 안단테 트란퀼로 비바체 디 피우 (Andante tranquillo - Vivace di piu)

2악장은 우아한 노래와 춤곡이 배합된 듯한 감쪽함이 느껴진다. 대체로 A-B-A'-B'-A"-B"의 형식이다. A는 완만하고 조용한 안단테 트란퀼로, B는 빠른 비바체, A'는 다시 느린 안단테, B'는 앞보다 약간 빠른 비바체 디 피우, A"는 안단테, 마지막에 B"는 비바체로 되어 있다. 각 부가 서로 동기적으로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A'-B'가 변주처럼 되어 있고, A"-B"는 코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온화한 피아노의 대위 선율에 실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조용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된다. 곧 d단조의 정열적인 비바체의 B부분으로 되고, 이 한가로움은 깨진다. 피아노가 분주하고 경쾌하게 연주된다.

바이올린은 춤추듯 지나간다. 이 B는 3부 형식으로 빈정거리는 느낌을 낸 마귀풍이기도 한 스케르초라고 할 수 있다. B가 강박을 줄인 화음으로 기묘한 느낌을 내면서 끝나며, 또 안단테로 되고, 서정적인 A'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D장조이지만, 앞의 A와 같은 선율을 조옮김하여 노래하고 있다. 곧 F장조로 돌아가고 A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그러나 A와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고 우울한 d단조로 바뀌고 나서 A'는 끝난다. B'는 피아노의 재미있는 리듬과 바이올린의 피치카토로 시작된다. 그러나 곧 피아노와 바이올린 앞의 B에 의거하여 정열적으로 약간 빈정대는 느낌으로 분주하게 진행한다. 조는 변함없이 d단조이지만, G장조로 기우는 것이 많다. 이것에는 우아한

A"가 D장조로 이어지고, 그것이 F장조로 바뀌어 끝나면, 마지막에 또 급속하게 짧은 B"가 나오고, 2악장은 끝난다.

### 3악장 |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콰지 안단테 (Allegretto grazioso - quasi Andante)

여기서 앞의 두 악장보다 다소 심각해진다. 열정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열정적인 비가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광활한 주제로 우아하게 시작한다. 이 소나타가 브람스의 곡 중에서도 손꼽히게 선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래하듯 느긋한 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 부분은 3부 형식으로 중앙에 감정 풍부한 E장조의 피아노 선율을 갖고 있다.

주제 부분이 끝나면, 피아노는 주제의 3부에서 이어받은 반주형을 이용하여 봄의 황혼 속 환상을 그리는 듯 아르페지오를 약하게 연주한다. 이어 바이올린은 호흡이 긴 선율을 연주한다(F#단조로 진행). 그러면 이번에는 이들 약기는 반음계적 진행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진행해 간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며,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주제가 나타난다. 주제가 끝나면 바이올린은 탄식하는 것 같은 C장조의 선율을 연주하고, 곧 피아노만의 짧은 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F#단조의 감상적이고 우아한 부주제를 연주한다.

이 부분 다음에는 일반적인 틀대로 주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르페지오 부분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제가 얼굴을 내밀지만, 마지막 쪽은 변형되어 더블스톱을 구사하는 빛나는 코다로 힘차게 곡을 끝맺는다.

## 프란츠 왁스만 카르멘 환상곡

## F. Waxman Carmen Fantasy

프란츠 왁스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작곡가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피아노, 화성, 작곡 공부를 계속했다.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겨 작곡 공부를 깊게 했으며, 편곡과 공동 작곡을 하고 유럽 영화에 곡을 붙이는 일을 했다. 1932년 나치 독일이 창궐하자 제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온 왁스만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할리우드에서 영화음악가로 맹활약했다. LA에 온 아르놀트 쇤베르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가 음악을 담당한 영화로는 마를레네 디트리히 주연의 ‘푸른 천사(1930)’, 제임스 웨일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의 신부’(1935),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레베카’(1940)와 ‘이창(Rear Window)’(1954) 등이 있다.

왁스만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르멘 환상곡’은 바이올린의 기교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쇼 피스이다. 사라사테의 것이 유명하고, 후바이의 작품도 연주되지만, 일반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왁스만의 작품을 선호한다고 전해진다. 오페라 ‘카르멘’의 정열적이고도 섬세한 주제들을 비브라토(Vibrato) 주법이 돋보이는 현란한 바이올린으로 표현한다.

‘카르멘 환상곡’은 1946년 영화 ‘유모레스크’를 위해 왁스만이 작곡 및 편곡한 곡들 중 일부이다. 비제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에 근거한 이 작품의 연주는 원래 야샤 하이페츠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곡의 사운드트랙에서는 젊은 아이작 스톤이 대신 연주했다(나중에 하이페츠는 이 작품을 녹음 발매해 최고의 해석가로 손꼽힌다). 영화에서 아이작 스톤의 손은 클로즈업 화면으로 나온다. 나오자마자 작품은 유명해졌다. 현재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외에도 트럼펫과 오케스트라, 바이올린과 피아노, 비올라와 피아노/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인기곡이 되었다.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은 서주와 알레그로 모데라토로 시작된다. 오페라 ‘카르멘’ 4막 전주곡의 아라고네즈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해 바이올린이 트릴, 중음, 트레몰로, 하모닉스 등을 자유로이 구사하다가 조용한 피치카토로 끝맺는다.

이어지는 모데라토에서는 오페라 1막 하바네라 리듬을 반주 피아노가 새기면 곧이어 바이올린이 등장해 눈부시게 선율을 장식하는 한편 격렬한 트레몰로를 펼친다.

렌토 아사이에서는 카르멘이 1막에서 부르던 콧노래 선율이 등장한다. 단음으로 시작한 뒤 포르티시모로 바이올린이 무수한 모방적 하모닉스(플레젤렛)를 연주하면서 조용히 마친다.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는 1막에 나오는 세기디야의 선율을 사용한다. 반주가 피아노로 세기디야 선율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이를 따라서 연주한다.

마지막 모데라토에서는 오페라 2막에서 카르멘이 노래하는 ‘집시의 노래’ 선율이 사용된다. 열정적인 트레몰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 세자르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 C.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세자르 프랑크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1886년 9월 28일, 벨기에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외젠 이자이의 결혼식에서 연주됐다. 베토벤과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에 필적할 만큼의 명곡이며 프랑크는 이 곡을 통해 비로소 작곡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당시 프랑스 음악계는 프랑크의 독일풍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뱅상 땡디는 이 곡이 ‘가장 순수한 순환 주제를 가진 최초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프랑크는 각각의 악장들을 ‘사촌’의 관계라고 밝혔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악장들을 따로 떼어 연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는 여기서 독특한 즉흥곡풍 수법을 사용했다.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동등한 위치에서 연주하는 점도 특징이다.

1악장 알레그로 벤 모데라토는 프랑크가 ‘연애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피아노가 조용히 전주곡 풍의 서주를 연주한 후 바이올린이 신비한 제 1 주제를 연주한다. 여러 갈래로 변화한 뒤 나중에 제 2 주제가 원래

PROGRAM NOTE

PROFILE

의 조로 연주된다. 회의적인 불안감을 자아내는데 평온하면서 적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다.  
 2악장 알레그로는 활발하고 명료한 정열을 보여준다. 의혹이 일소되고 발랄한 논의가 벌어진다. 피아노의 서주 다음 거친 제 1 주제가 나온다. 바이올린이 이를 받아 피아노와 같이 유니즌으로 반복한다. 맹렬한 감정의 폭풍이다. 정열을 찬란하게 방사하는 악장이다.  
 3악장은 레치타티보-판타지이다.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이다. 피아노가 어두운 화음을 연주하면 바이올린이 레치타티보를 켜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응답이 이어진 다음 피아노가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오고 바이올린이 이에 응답한다. 환상적으로 전개되며 절정에 오른다. 얼마쯤 지나고 우울함이 깃든 코다로 들어간다.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는 맑고 아름다움에 차 있다. 3악장에서의 의혹은 사라지고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카논 형식으로 엮어나가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악장이다. 이자이의 결혼 선물임을 상기하면 이 승리는 결혼에 도달한 사랑스런 커플이 그리는 행복한 미래이기도 하다.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스케르초 타란텔라 Op.16**

**H. Wieniawski**  
**Scherzo Tarantelle Op.16**

바이올리니스트의 기교를 자랑하는 이른바 쇼 피스(Show piece) 중 하나다. 비에니아프스키 초기의 작품에 속하지만 눈부신 패시지를 연주하게 되며 고도의 어려운 기교를 요한다.  
 프레스토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 무곡 타란텔라의 리듬을 넣은 스케르초다. 빠른 패시지와 서정적인 부분을 대비시켜 만든 소품이다. 먼저 곡을 시작하면 바이올린이 계속 움직이는 8분 음표의 주제를 연주한다. 이 주제의 높낮이 변화는 격렬한 경과부를 사이에 두고 세 번 나타난다. 중간부는 G장조로 조바꿈하여 바이올린은 안정감 있는 느릿한 새 주제를 연주한다. 중간부에서 1부 주제의 변모를 볼 수 있고 잠시 후 전에 나온 주제의 변형된 서정적인 주제를 이번에는 다른 조로 노래한다. 피아노는 변모해서 1부의 주제와 같이 아르페지오풍의 리듬으로 색채적인 면을 보인다. 마지막 제1부가 축소돼 돌아가 첫 주제가 화려하게 나아간다.



**스텔라 첸 (Stella Chen)**  
**바이올리니스트**

올해 2019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스텔라 첸은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로부터 ‘주목해야할 라이징 스타’ 그리고 현악 매거진 스트라드로부터 ‘따뜻한 소리와 긴 음악적 라인’으로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수상 이전부터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벨기에 발로니에 로얄 챔버 오케스트라, 메테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 웨일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최초로 로버트 레빈 상(the Robert Levin Award)을 수상했으며 티보 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The Tibor Varga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메뉴인 콩쿠르(Menuhin Competition)에서 최연소로 수상하였다.

또한 케네디 센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카고 마이러 헤스 여사 기념 공연 시리즈(Dame Myra Hess Memorial Concert Series) 등의 공연장에서 리사이틀을 하였다.

최근에는 부탄, 오르단, 이스라엘, 쿠바, 콜롬비아에서의 연주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Music@Menlo, 펄만 뮤직 프로그램(the Perlman Music Program), 사라소테 음악 페스티벌(The Sarasota Music Festival), 라비니아스 스티븐 뮤직 인스티튜트(Ravinia’s Steans Music Institute), 옐로우 반(YellowBarn) 등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현재 그녀는 이작 펄만, 로버트 레빈, 로저 태핑, 미리암 프리드, 실크로드 앙상블 등 세계적인 연주자와 함께 연주를 하며 더욱 입지를 굳히는 중이다.

## 티모시 추이 (Timothy Chooi)

바이올리니스트



티모시 추이는 2018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요제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하고 올해 2019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2등을 수상했다. 그는 뉴질랜드 마이클 힐 바이올린 콩쿠르, 몬트리올 심포니 매뉴 라이프 콩쿠르에서 수상하는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이미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음악가에게 수상하는 'Prix Yves Paternot'을 수상하여 다음 시즌, '베르비에 페스티벌 (Verbier Festival)'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공연했다.

2018-19 시즌에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독일 브란덴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폴란드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벨기에 리에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스위스 그슈타드 메뉴힌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연주했을 뿐 아니라 할크스 주커만이 지휘하는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는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문화 유산의 날 행사와 같은 세계 평화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그의 친형인 니키 추이(Nikki Chooi)와 함께 'The Chooi Brothers' 앙상블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이 드문 세계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5년 넘게 연주를 하고 있다.

최근 추이 형제 앙상블은 음악이 주는 행복을 알리고 나누기 위해 캐나다 중부와 북부 전역의 고립 지역을 위한 10회 공연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완료해 많은 클래식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리브레히트 반베케부르트 (Liebrecht Vanbeckevoort)

피아니스트

벨기에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는 차세대 연주자 중 한명이다.

그는 얀 미키엘스(Jan Michiels), 매너햄 프레스러(Menahem Pressler), 러셀 셔먼(Russell Sherman), 엘리스 비르살라제(Elissó Virsaladze)와 같은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사사했으며, 200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로 이후 베네룩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스위스, 폴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 캐나다 및 미국의 주요 무대에서 '스타 인 웨이 아티스트'로서 전세계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네덜란드와 해외의 수많은 음악 축제에서 활동했으며 벨기에의 'Antwerps Sportpaleis'에서 열린 2007 'Night of the Proms'기간 동안 독점적인 클래식 아티스트였으며, 베토벤 (5개의 피아노 협주곡, 3개의 협주곡, 합창단 판타지)과 모차르트, 멘델스존, 쇼팽, 슈만, 브람스, 생상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및 프로야의 합주 작품을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다. 2014년에는 5개의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를 공연 때 연주하였고, 5개의 CD를 녹음하였다. 그 중에서도 리스트의 콘체르토 2개와 라이브로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 그리고 멘델스존과 슈만의 피아노 솔로 작품의 음반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내악 음악에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캉 닝(Ning Kam), 저버린 폰 에카르트슈타인(Severin von Eckardstein), 토마스 브론델레(Thomas Blondelle)와 함께 로에랜드 헨드릭스 앙상블(Roeland Hendrikx Ensemble)의 멤버들과 활동하며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매우 열정적인 아티스트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영화와 음악의  
획기적인 만남!



자유로운 객석과  
힐링되는 영화!

# 빅도어시네마

Bigdoor Cinema

2019.05.18 (토) ~ 09.13 (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극장1 야외무대 | 전석무료



예술극장  
ACC THEATER

2019. 5. 18(토) PM 8:00

★오프닝 공연  
2019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페스티벌  
PRAGUE SPRING

☞ 나의 조국 My Country 실황 상영

2019. 5. 19(일) PM 8:00

☞ 뮤지컬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  
25주년 기념 상영

2019. 7. 5(금) PM 8:00

★기념 공연  
한국영화 100주년

☞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춘의 십자로  
\*영상자료 제공 | 한국영상자료원

2019. 7. 6(토) PM 8:00

☞ 사랑은 비를 타고  
★스페셜 게스트  
PM 9:40 바버렛츠

2019. 9. 12(목) PM 7:30

★토크콘서트  
영화와 함께하는 브라보 재즈 라이프  
출연자 : 영화감독 남우성, 재즈 1세대 밴드

2019. 9. 13(금) PM 7:30

☞ 위플래쉬 Whiplash  
★스페셜 게스트  
PM 9:40 위플래쉬 프로젝트 밴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스토리콘텐츠 제작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시범 공연



대건미술 | 이윤기 | 드라마투르기 | 정영철 | 영화 | 예술극장

# 시간을 칠하는 사람

2019.10.16.수 -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평일 | 오후 7시 30분 토 |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일 | 오후 3시

ACC 참제작 어린이공연  
용감한 탄티 (A Brave Tanty)  
원작 <말이 말을 찾아>

3개월 이상 관람가  
공연시간 50분

# 용감한 탄티



2019.9.12(목)-9.13(금) 11:00, 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작 아시아문화원, 극단 파랑새 www.acc.go.kr 1899-5566



고품격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ACC 공연 브랜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 슈퍼클래식

ACC  
슈퍼클래식  
Super  
Classic



전세계가 주목하는 뛰어난 기교와  
감각적인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Ray Chen Violin Recital

##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9.11.1.(금) 오후 7: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티켓 R석7만원 S석5만원 A석3만원 문의 1899-5566 www.acc.go.kr





아시아문화원

원장 이기표

콘텐츠사업본부장 최정봉

공연기획팀장 오채환

공연기획팀원 양수연 김미경 최혜영 이한준

오수환 김종원 이은지 이병언 김결

하우스 매니저 김지인 박수진

하우스 어서 김민희 김영웅 김예은 김지현

김태완 박현서 서미경 서영섭

서현아 윤지혜 이록빈 이하영

정다슬 정서윤 정철호 최가영

최세영 홍유선

무대기술팀장 양필주

무대기술차장 윤광덕

무대감독 신지혜 임종민 정동균

음향감독 나인권 박지연 백민준

조명감독 이광득 범서인

무대진행 박성용 김진만 김평강 가도균

음향진행 김왕민 정인범 김주희 송상훈

조명진행 박지은 정영록 윤효영 이성호 이가현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www.acc.go.kr 1899-5566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 슈퍼클래식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와 더불어 주목받는  
차세대 아티스트의 슈퍼클래식을 소개합니다

# ACC 슈퍼클래식 Super Classic



라파우 블레하츠 & 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2월 16일(토) 오후 5:00 / 극장2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리사이틀

5월 8일(수) 오후 7:30 / 극장2



싱가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

5월 10일(금) 오후 7:30 / 극장1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6월 11일(화) 오후 7:30 / 극장1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9월 6일(금) 오후 7:30 / 극장1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1일(금) 오후 7:30 / 극장2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월 15일(금) 오후 7:30 / 극장1

관람료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문의 홈페이지 [www.acc.go.kr](http://www.acc.go.kr) | 콜센터 1899-5566

